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2월 8일(음력10월 27일) 수요일 (주간) 제503호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 불광사, 북한산 삼봉사, 포천 장안사, 가평 불광사 법흥사 등
웰빙 온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종교화합 마당 더 넓히자

서울·포항·목포 등 시장들의 '발언' 파문… 교계 '기구 구성' 나서

이명박 서울시장에 이어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편향 행위 파문이 확산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몇몇 지역에서, 그 지역 개신교인 기관장과 유력인사들 모임인 '홀리클럽'이 주최한 행사 도중 잇따라 '성시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을 종교계는 주목하고 있다.

한국홀리클럽 성시본부 정관에 따르면 성시화(聖市化)는 "그리스도 가르침에 따라 거룩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의미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 간의 평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렇지 않아도 계층간·정치세력간 갈등이 심각한 요즘 종교까지 갈등 양상을 보일 경우 우리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종교지도자들이 나서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종교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신분망각이 편향 원인

이명박·정장식 시장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위 공직자의 종교편향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전태홍 목포시장이 "목포시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발언해 지역종교사회 단체의 반발을 샀다. 또 '봉헌' 발언이 불거진 이후 불교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성시화' 언급이후 포항 종교편향 대책위는 12월 15일 정시장의 종교편향에 항의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의 원인으로 공직(公職)에 대한 인식 부족을 우선 꼽는다. 지역단체장들이 지역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라기보다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라는 생각을 앞세운다는 곳이다.

또한 자신의 종교만을 인정하고 강요하는 배타적인 사고도 종교 편향을 낳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입을 모은다.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의 공직자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백도웅 목사는 "사회가 다양화 될수록 종교 갈등 역시 증가할 것"이라며 "이럴수록 공직자들이 종교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가 지난 10월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의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6.6%가 한국사회에서도 종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대답해 종교간 상생을 위한 노력이 없을 경우 종교계 전체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불교계 대안 제시 움직임

따라서 이러한 종교 갈등 양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교계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관련법과 제도의 개정이 중요하다"고 잘라 말한다. 현행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조항에 따라 종교 편향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을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계도 이를 위해 관련기구를 구성하고 법안 검토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1월 27일 열린 2004년 정기총회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2005년 4월경 설치해 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현재 실무를 진행 중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도 2005년 2월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종교 평화를 위한 신도교육과 종교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웃 종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도 필수적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종교 평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와 천주교 평신도 모임인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손병두)가 2005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신도가족 교환 홈스테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신도회 한 관계자는 "분기별로 5~10개의 가족이 참여해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종교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2면에서 계속

백담사 선원 수좌 50여명이 수덕사 황하정루에 마련된 빈소에서 합동으로 분향하고 있다. 예산 수덕사=고영배 기자

"오직 모를 뿐… 큰스님 가신곳"

숭산당 행원 대종사 원적… 4일 수덕사서 원로회의葬

달라이 라마와 함께 세계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으며 한국불교 세계화에 진력해왔던 조계종 원로의원 숭산(崇山)당 행원(行願) 대종사가 11월 30일 오후 서울 화계사 염화실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수 77세, 법랍 57세.

12월 4일 예산 수덕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된 영결식은 영결법요, 행장소개에 이어 숭산 스님 생전의 육성법문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추모입정 순으로 이어졌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오늘 스님의 입적이 생사투탈(生死透脫)입니까, 신명상실(身命喪失)의 허물을 드러낸 것입니까"라고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와 얼굴이 다른 벽안납자들이 스님이 사바에 현신하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추도사를 통해 "지구촌 가는 곳마다 흑과 백을 섭수하시고 눈 푸른 세계에 선풍을 떨치시도다"라며 숭산 스님의 해외포교 원력을 기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스님의 가르침은 인류의 화합과 세계 평화의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 있다"고 추모했다. 숭산 스님 행장 4면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현대불교'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현대불교' 평생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내걸고 출발한 '현대불교'가 사부대중 여러분의 큰 사랑에 힘입어 교계 정상의 신문으로 1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는 지난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함께 불교발전을 일굴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 영구독자 혜택
현대불교신문 영구독자에게는 평생 신문을 보내드리며, 자녀에게도 혜택을 양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구 구독료
62만5천원(일시불 납부)

■ 구독신청 및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TEL: 직통 (02) 737-0090
대표 02-737-8881
FAX: (02) 737-0697

스마트폰 '아이 벗' 무료 증정

올해 12월 말일까지 영구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HP rw6100 기종, 시중가 72만6천원) 아이벗(I-BUD)을 무료로 드립니다. 불자 스마트폰 아이벗(I-BUD)은 2005년 1월 1일 부터 불교뉴스, 큰스님 법문, 사이버법당, 교양대학, 불교정보센터, 문화콘텐츠, 커뮤니티, my page, 문화상품샵 등 총 9개 메뉴로 구성되는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불교정보 매체입니다.

■ 아이벗(I-BUD) 제공조건: 12개월 의무사용, 가입비 3만원 별도

■ 아이벗(I-BUD):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며, BUD는 Buddha(부처), Buddy(친구)를 뜻합니다.

제10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마감 12월 15일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5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및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각각 수여합니다.

'할'

그림·조태호

혜오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訃 告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崇山堂 行願 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8(2004)年11月30日(陰10月19日) 午後 5時20分경 서울 화계사 염화실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門徒代表 惺光 合掌

■ 永訣日時 : 佛紀 2548(2004)年 12月 4日(陰10月 23日) 午前 10時 30分
■ 永訣式場 : 修德寺
■ 茶 毘 場 : 修德寺 蓮花臺
■ 問議 및 連絡處 : 02-903-3361·041-337-6565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崇山堂 行願 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宗山

曹溪宗 元老議員 崇山堂 行願 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 證 明 : 법전 종산
■ 葬儀副委員長 : 지혜 보성
■ 葬儀委員 : 도견 법륜 벽암 도천 도원 수산 성주 활안 녹원 원명 이두 정천 천운 돈훈 지관 지제 초우 혜정 법행
■ 護 喪 : 원담
■ 進行委員長 : 법장
■ 進行副委員長 : 법등 월서 청화 도영
■ 進行委員 : (ㄱ~ㄷ)
고산 월주 능가 송담 지유 월운 정우 법정 도문 밀운 법홍 철웅 보우 정원 순월 종하 설정 무공 오현 현호 우송 법찬 법안 법현 법광 혜안 현해 현성 종범 혜성 학능 능혜 인환 지안 무문 정태 정찬 지하 성우 법산 암도 무비 성타 정련 천제 혜자 종걸 근일 벽봉 현봉 세민 혜총 혜인 도법 수경 지선 원혜 법산 현각 보광 종호 혜남 성우 보각
■ 葬儀委員 : 보정 성정 지원 진원 심경 현고 일관 진명 현관 화랑 정락 마근 정념 도공 지각 지성 법타 종상 현응 원정 현문 혜승 평상 명공 명섭 영조 몽산 용우 법여 청안 지운 법룡 동덕 도광 성산 고우 무여 적명 인각 현기 명정 혁산 함부 정광 원융 현묵 혜국 지환 의정 명진 영진 법응 덕민 통광 혜남 응각 종묵 현진 진원 종진 성우 철우 지현 혜능 지민 지현 동광 효림 성직 성월 정휴 도후 도완 정광 원담 진구 장곡 탄우 이행 선광 법보 혜승 법광 자적 무이 장우 종광 향적 선각 정인 이암 원정 상운 지준 도문 설송 법조 원행 일화 현공 의연 진만 일문 무자 보경 보선 월우 중원 광조 법경 성국 혜림 초격 지욱 정문 원택 종열 학담 종훈 일면 지홍 정호 도각 정안 영담 종삼 영배 토진 장윤 법안 자승 정도 명성 혜해 태구 지명 광우 상덕 성원 진관 묘엄 태경 상륜 현문 법용 불필 혜근 수현 본각 도문 운달 홍륜 계호 경륜 정성 강혜원 서혜원 법굉 자명 황백 경보 보정 대광 지일 지오 도신 삼오 청용 주경 덕원 선광 혜찬 석청 강민 호엽 동은 정암 밀본 일묵 종학 원주 우엽 대웅 성진 부연 서강 학송 진일 원일 법신 단호 삼서 정호 보성 봉만 관공 혜일 정운 종실 경원 명선 청운 도영 종식 혜인 도일 묘청 수법 소림 정진 세창 진우
■ 執行委員長 : 법정
■ 都 監 : 지운 무애
■ 乘 法 : 세민 자명
■ 儀 典 : 선광 인행 지만 법룡 덕원 동덕 영도
■ 知 賓 : 도광 석청 지일 삼오 홍법 설주 여명
■ 財 務 : 효성
■ 接 受 : 지오 경원 견성암·환희대 대중
■ 弘 報 : 정암 김영일 윤스환 여혜영
■ 護 法 : 선본
■ 院 主 : 효정
■ 別 座 : 덕현
■ 侍 者 : 법보 도준 무현 향일
■ 茶 角 : 즈용 견성암·환희대·선수암 대중
■ 供 養 : 묘행 견성암·보덕사 대중
■ 進 行 : 수암 주경 정법 광호일 이인수 박상희 박종학 김남현
■ 運 柩 : 정혜사·향천사·개심사·신흥사·백담사 대중
■ 駐 車 : 선본
■ 門徒代表 : 성광
■ 恩法上座 : 계정 정우 묘각 성광 오륜 혜명 담오 각만 지학 무상 무량 무심 도문 도안 도관 대원 계문 오광 만휴 원도 원통 현각 현성 현공 현문 청안 대성 명안 광옥 범조 향음 묘행 원화 묘지 광명 청심 청오 지향 청도 계경 명혜 명화 원성 관미 자은 법현 보보 보관 지광
■ 孫 上 佐 : 혜준 청광 청원 청혜 조불 혜종 혜통 명행 명공 법광 혜안 관법 관행 관진 관산 혜진 보행 보인 혜법 법성 법일 혜오 혜조 혜청 광옥 범조 향음 원화 원호 광명 청섭 청오 지향 청도 지천 명혜 명화 원성 관미 자은 법현 원보 보관
■ 在家弟子 : 성문 덕장 광명 대봉 창전 향림 수연 일관 현암 보각 무림 법등 무명 진공 지암 일법 법진 도성 등명 적광 지광 초당 도진 지명 무공 담림 현광 청송 평정 지견 보명 도원 청강 법혜 자광 대연 보산 현광 도원 정산 도광 덕산 법인 인광 덕현 효봉 자광 성담 보인 보명 혜공 무득 여해 덕림 대연 덕현 혜지 향림 금원 진오 보명 보정 일우 덕문 도원 석호 법현 명우 덕장 유리심 대선행 법성화 길덕화 무상심 보리심 법운화 금강화 호법행 보현화 보덕궁 정각월 혜능화 법왕자 대법성 정법신 원만심 묘각심 일상화 대덕화 고상화 자인행 관음만 보리장 반야심 길상원 무진성 이건호